

Nr. 554 (2024 - 11-12)

빛



Licht und Salz

이웃

편집부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이 되면 독일에서는 벌써부터 성탄절 분위기에 들어가는데요, 루카 복음서 10장 27절에서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올 한 해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보냅시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주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실천을 통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편집부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즐겁고 따뜻한, 보람찬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마태오 복음서 22장 39절)

하느님께서는 고아들과 과부들의 아버지, 떠돌이들의 피난처, 억눌린 이들의 정의이시니, 하느님 사랑에 의탁하는 불쌍한 이들을 지켜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와 빵을 넉넉히 얻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진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시편 88장 3절) 참조



9월 15일 추석 미사 1



9월 15일 추석 미사 2

이웃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실장님과 함께 / 박경하 세실리아 공동체 실장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피정 소감 / 박석정 가브리엘라, 허인경 아녜스,
피정 소감 / 장유정 글라라, 제근영 보나, 김지윤 크리스티나



2024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설 (Neujahr)

3,4월 세례 (Taufe)

5,6월 승천 (Himmelfahrt)

7,8월 피정 (Exerzitien)

9,10월 수확 (Ernte)

11,12월 이웃 (Nachbar)



9월 29일 외국인 공동체 미사 1



9월 29일 외국인 공동체 미사 2

섬김과 겸손의 마음, 이웃 사랑

박경하 세실리아 공동체 실장님 (Gemeindehelferin)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
해야 한다."(마태 22,39)**

네 이웃을

이웃 사랑은 곧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민 사랑의 손길이 이웃에게 따뜻하게 전해질 때 우리의 이웃사랑은 비로소 실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루카 10,29)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비록 우리도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느님께서 연결시켜 만나게 해주시는 이들입니다. 그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성경의 말씀, 교회의 성사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보여주십니다.

너 자신처럼

예수님은 우리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에는 진실되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등의식, 자존심의 결여, 질투, 자기학대나 비하와 증오의 벽으로 자신의 마음을 닫아 놓기도 하고, 매사에 자기 것만 챙기며 탐욕과 경쟁에 집착하며, '자기중심'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부정적이고 미워하는 감정과 시각의 감옥안에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스스로 주위에 있는 이웃을 발견하고 그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때의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장님이요 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합 피정에서의 모토인 “내 마음아, 눈을 떠라”에서 처럼 우리의 참된 자애와 이웃 사랑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문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활짝 열어놓는 작업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때, 우리 비로소 성령의 힘으로 무엇이 참과 거짓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망설임없이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자애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1요한 3,18)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태석 요한 신부님이 남수다의 톤즈라는 오지에서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사제로서 사목하시는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태석 요한 신부님께서는 항상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영혼과의 만남이다“라고 하시며, 환자를 처음 진료하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요?“ 라는 물음 대신 환자(한센병 환자들까지도)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파요?“라는 질문도 보통은 걱정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환자들은 그런 ,말'보다도 신부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행동'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도움의 손길이 훨씬 더 따뜻하게 전해졌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욕심 없이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는 행동. 그것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주위의 이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이웃을 보고도 용기있게 다가가 도와주지 못하면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만 집착하는 것은 성경적 신앙이나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연결 되어야 합니다. 그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려면 우선 연합 피정에서의 기도 „내 발을 씻기신 예수(세족례)“에서와 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발을 씻어 줄 섬김과 겸손의 마음을 청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섬김과 겸손의 은총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미사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말씀(성경말씀)을 경청하고 꾸준히 성사(성체성사, 고해성사)에 참여합니다. 아멘.



10월 3-5일 연합피정 피정 세족례



10월 3-5일 연합 피정 Basilika 미사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마르 12, 29-31)

여러분들은 올 한해동안 공동체 안팎에서 많은 이웃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이웃이 되어주는 은총을 누리셨나요? 그 이웃들과 함께 하느님의 은총 가득한 성탄절 맞이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령의 축복 속에서 올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9월 29일 외국인 공동체 미사 3



10월 20일 성가 발표회 1



10월 20일 성가 발표회 2



10월 20일 성가 발표회 3

관상기도

전영민 수산나

나는 10여년 전부터 관상기도에 참여 하고있다. 잠깐 이 관상기도 (Kontemplation) 를 소개 한다면, 5명 내지 6명이 사제관 다락방에서 둥글게 앉아 단정히 무릎을 꿇고 되도록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코끝으로 숨결을 모아 명상에 들어간다. 명상으로 들어가 기전, 관상기도 입문서나 신학적인 글을 듣고 주의기도를 하고나서 "공"소리와 함께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 Atmung -- 호흡이다. '예수님', '성모님', '주님의 뜻대로' 등등의 짧고 간단한 기도문을 각자 자신들의 생각대로 들숨과 날숨을 조정하면서 묵상으로 읊조리는 것이다. 50분간을 두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그 사이는 방을 두바퀴 역시 묵상적으로 걷는 것이다. 두번의 묵상이 끝나면 "공" 소리와 함께 성모송을 바치고 마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명상기도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고 집안이나 묵상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또는 하느님과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자연속에서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자연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 개인의 의지대로 10, 20, 30분을 해도 좋고 아니면 5분이라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이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는 것이다.

관상기도 입문서에 이런 말이 쓰여있다. 믿음이란, 보지않고 체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관상기도의 의미는 최상의 진리, 하느님을 보려는 수련이라고 한다.

코린토서 13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다. 내가 지금은 무문적으로 알지만 그 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의 은총은 우리 인간의 마음안에 죽음후에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초자연적인 예지가 있다고 한다. 신을 찾고 그리워하며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이 있을 거라는 예견이다. 관상기도는 이러한 죽음 후를 향한 본래의 고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근원은 하느님으로 부터라는 확신이 종교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들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미사 1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미사 2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미사 3

이 모두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각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또는 침묵으로 말씀 하신다고 한다.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아 보는 것이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십니다"

(시편 119장 105절)

"당신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 말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시편 119장 103절)

"나 너와 함께있으니 두려워 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 힘을 북돋우고 너희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희 붙들어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느님은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실까? 어느 해 피정 때 썼던 글이 손에 들어왔다

"주님, 제가 허튼소리, 의미없는 말,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말, 삼가하게 하여주세요. 남을 즐겁게, 흥겹게, 톡 쏘는

사이다 같은 시원한 말, 분위기에 맞는 말 만을 하게 해주소서. 어느 경우라도 나를 자랑 하는 말, 남의 험담의 말을 삼가 하도록 제 입을 막아 주세요"

우연히 이 글을 읽으면서 저절로 미소가 번져 나갔다. 이런 회개의 글을 썼을 땐 꼭 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심이 보였기 때문이고 과연 그 결심대로 살아왔을까 하는 마음 이었다

확신하고 싶은 것은 이 결심을 매일의 생활안에서 반성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또 하나의 성찰인 것이다. 주님께선 우리의 완벽한 것 보단 매일의 삶에서 좌절 하지 말고 다시 일어 서기를 바란다고 하시지 않던가.

"신을 믿으라, 하지만 차는 잠그고 다녀라. 기도하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힘이 거기 있다."

어느 시인이 쓴 글귀... ■■■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행사 1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행사 2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행사 3

피정 소감

뭘엔 본당

박석정 가브리엘라

오 해 3월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저에게는 첫 피정이었습니다. 피정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몰랐고, 그저 ‘가면 좋을 거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피정보다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고,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피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피정 첫날, 일정 때문에 늦게 참석하게 되어 저에게는 고해성사가 첫 피정의 일정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주신 보속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하느님이 함께하셨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대침묵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중 특히 의미 있었던 시간은 둘째 날 저녁, 세족식 전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내 발을 씻기신 예수”라는 마지막 주제의 기도 요점 중에서, ‘예수님께서 배반자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과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발을 씻어줄 겸손의 마음을 청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배반자 유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며 한없이 작은 제 모습을 발견했고, 기도 시간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물 없는 세족식에서 조별로 모여서 조원들의 발을 만지며 무릎 꿇고 한 분 한 분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나와 함께하셨다’ 혹은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하지는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정에서 받은 보속,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사랑 덕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 적지 못한 소중한 시간이 많았지만, 이번 피정에서의 경험들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뜻깊은 첫 피정을 만들어 주신 신부님과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께서도 꼭 한번 피정에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월 3-5일 연합피정 1



10월 3-5일 연합피정 2

레겐스부르크 공소

허인경 아네스

여마만에 가지는 자유시간인가, 엄마 손길 당연한 줄 아는 아들과 고마움 표현에 인색한 남편이 내심 괴сь했는데 홀로 집을 떠나서 휴가를 받은 듯 마냥 즐거웠다. 분주한 마음과 걱정거리들을 다 비우고 오라는 신부님 말씀에 더 흥이났고 함께 가는 자매님들과 실컷 한국말로 수다를 떨 생각에 신이 났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피정의 집은 1445년 아기 예수님과 무려 14명의 도우미가 함께 발현했다는 기적의 장소에 지어진 아름다운 성당 아래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하고 있었고, 2박 3일 동안 짧지만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시편 108,1) 라는 주제로 7번의 기도 시간과 고해 성사의 은총, 조별로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들여다보는 시간,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 위로 받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다. 마음에 가득했던 무거운 짐, 이기심, 조급함, 미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나약함, 게으름 같은 묶은 때가 조금씩 닳어나갈수록, '아, 내게 하느님 만나게 해 준 사람이 남편이었지.' '만만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투정을 부렸네. 모두 힘들었을텐데.' '아, 내가 그동안 성경도 멀리두고 묵주기도를 드렸던 날이 언제였더라.' '내가 바로 유혹에 빠져있었구나.' '내가 가진 좋은 것도 많은데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었구나.' 반성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채워 결국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루가 22,40) 이번 피정을 통해 한 가지 모토로 정한 하느님과 나의 약속이다. 또 다시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좀 더 담대하게 살아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고 공동체방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며 가족들은 함께 하지 못한 피정에 대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얼마나 은총 받았는지 신나게 자랑하는데, 너무 못생기게 울고있는 내 사진을 발견하고는 온 가족이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덕분에 더욱 잊지 못할 피정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던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잊지 말자. 



10월 3-5일 연합피정 3



10월 3-5일 연합피정 4

피정 소감

뉴튼베르크-에어랑엔 공소

장유정 글라라

6 / 번 피정은 저에게 첫 피정으로 처음엔 2박3일이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그곳에선 아쉬울 정도로 시간이 빨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의 짐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가족이나 다른 이들의 아픔도 바라보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미사 때 항상 신부님이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들, 피정 안에서는 좀 다르게 다가와서 작은 기적처럼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놓치고 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었고, 그걸 항상 느끼며 사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 사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지칠 적에 한번만 뒤를 돌아본다면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불안하지 않은 사랑, 그게 저에게 이번 피정에서의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읽고 생각하는 성경구절 보다는 다른 이가 읽어주고 불러주는 성가에 감명받은 피정이었어서 4개 공소 안에서 함께한 이 경험은 첫사랑으로 그 감정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





10월 3-5일 연합피정 6



10월 3-5일 연합피정 7

피정 소감

뷔르츠부르크 공소

제근영 보나

안녕하세요. 저는 Würzburg 공소에 제근영 (보나) 라고 합니다. 20년 저의 독
일생활에서 피정을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제 삶에 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 갈 새로운 길
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방향을 찾고자 이번 피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접하게 되는 새로운 것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번 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피정을 통해 많은 생각을 갖
게 되었습니다.

피정 중에 여러가지 기도와 일정을 함께 하면서, 주어진 새롭고 낯선 환경들이 마
냥 두렵지만은 않았고, 또 다른 설레임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정
을 통해서 느꼈던 그 좋은 설레임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더 실천해 보
기로 저 자신과 작은 약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주임신부님과 실장님 그리고 멀리서
기꺼이 와주신 손님 신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0월 3-5일 연합피정 8



10월 3-5일 연합피정 9

피정 소감

뮌헨 본당

김지윤 크리스티나

Diozesanhaus Vierzehnheiligen에서 2박 3일.

나의 피정은 먹고, 뮌헨 출발, 무작위로 선별 된 우리의 차량팀 막내가 사온 유명한 시나몬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오늘이 첫 만남이었던 세 사람의 어색함을 시나몬 향으로 스윙 걸어내었다. 처음 만남에 음식을 주제로 하는 대화가 합일점을 찾으면 입에 있던 음식이 튀어 나올 정도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만한 중개자도 드물다. 우리들의 피정도 첫번째 식당에서의 만남이 설레임 이었다면, 마지막날 점심식사는 아쉬움과 다음에 다시 보자는 의리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음식은 언제나 좋다. 맛있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먹었으니 함께 나눈 기도는 감칠맛이 나고 그곳의 음식은 참 맛있었다고 기억한다.

기도하고, 온전히 나를 믿고 내 차에 탄 3인과 함께한 안전운전의 바램을 담은 묵주기도, 피정 시작 전 참여자 전체가 모여 2박3일 피정을 위한 묵주기도, 저녁 찬바람 맞으며 5조 팀원들과 14성인성당을 돌면서 했던 묵주기도, 나에게 전에도 없었던, 앞으로도 그 곳에 그 순간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하기 힘든 묵주기도시간이었다. 일정표를 나눠주시며 다음 일정을 궁금해하지 말라고 하신 요셉신부님 말씀처럼, 피정의 궁금증보다 피정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묵주기도 성월의 내가 바친 묵주기도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께 전구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생애로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과 마주하는 기도시간,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도시간이 그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여라”였다.

이번 피정에서는 막내 4살 지호 비비안나부터 가장 큰 언니이자 따뜻한 어머니 같은 뷔르츠부르크 공소 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어떤 피정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세대간의 만남이 있었다. 해지 에바가 같은 차량팀이 되어 4살 지호 비비안나와 이야기하며 즐겁게 피정길로 온이야기, 아침식사를 하면서 제일 어르신이셨던



10월 3-5일 연합피정 10

뵈르츠부르크 공소 회장님의 음식 이야기등, 이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의리를 다지는 신앙시간을 보냈다.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시편108. 1)라는 주제로 빼꼼한 일정표를 보고 눈 뜨기 전에 감고자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장난꾸러기 같은 마음도 들었지만, 눈을 감고 잠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시간에 따뜻하게 마음의 눈이 떠지는 순간이 참 많았다.

"먹고, 기도하며 사랑하여라" 영화의 제목처럼 언제나 제가 피정으로 들어가는 마음가짐입니다. 피정에서 보낸 2박3일의 기도와 감동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잊혀져 가고, 예전과 크게 바뀌는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각자의 소명과 역할을 하느님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피정의 쉼표가 여러분에게 스며들어 숨을 고르게 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만듭니다. 하루에 짧게 10분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주일 미사의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미니 피정을 하시면서 잘 보내시다가 다시 숨이 차면 또 다시 내 마음의 눈을 뜨는 시간을 만나러 잠시 떠나보는건 어떨지요.

파티마 성지순례길에서... 🇵🇹🇮🇹🇪🇸



10월 3-5일 연합피정 11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행사 4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행사 5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행사 6



11월 1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은경축일 행사 7



11월 3일 미사 후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르쯔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erweg 6A, 93051 Regensburg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 편집부

김서현 로렌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박석정 가브리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